

● 농장탐방 | (주)바이오사료연구소가 추천한 남촌목장

자의 힘,

이-나-과

『논어』 제6편 응야(雍也)의 한 구절에 오랫동안 호흡이 멈춘 적이 있었다. “지지자 불여호지자, 호지자 불여락지자(知之者 不如好之者, 好之者 不如樂之者)” 그 말이 주는 여운이 한동안 내 인생의 무สน 좌우명처럼 따라 다녔던 것이다.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알기만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는 그 깊은 뜻이 마음에 들었던 까닭이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진정으로 내 일을 즐기는 그 높은 경지에 이르지 못해 날마다 아등바등, 허우적거리고 산다. 그러면 서 그 좌우명처럼 떠받들던 구절도 어느샌가 나의 책상머리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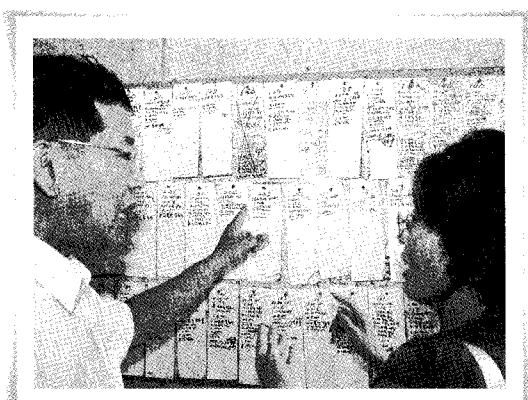
9월, 충북 보은의 『남촌목장』을 다녀오던 길에서 나는 문득 잊어버린 나의 좌우명을 머릿속에서 다시 들추어 볼 수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일이 즐거운 한 부부를 봄으로 만났기 때문이다.

양병철(47세)사장과 그의 아내는 모두 120두의 젖소를 키우고 있다. 착유우가 60두이고, 건유가 16두, 나머지는 모두 육성우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쿼터량은 1580L, 일일 평균 유량은 2톤에 이른다. 평균 유지방은 4.1~4.0%이고, 체세포수는 12만~14만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우유는 모두 진홍회로 납유한다. 부지런히 잘 키운 젖소들 덕분에 최근엔 지금의 낡은 우사를 대신할 새로운 목장 작업이 한창이다. 그 때문에 사실 근래에 젖소들에게 조금 소홀했던 것도 양병철 사장은 솔직하게 고백한다. 그래도 남촌목장은 이미 젖소 잘 키우기로 인근에 파다하게 소문이 나있다. 심지어는 남촌목장에서



▲양병철 사장의 ‘내겐 너무 고마운 아내’

빼는 소까지 이웃에서는 사가기도 한다. 그리고도 “다음에도 또 빼는 소 있으믄 우리 집에 팔어~!”하는 소리까지 듣고 있다. 그냥 묵묵히 기본만 충실히 했을 때였는데, 종축개량협회에서 나온 검정사업 담당자들은 남촌목장의 소를 보면 꼭 말한다. “아이구, 개량 참 잘해놓으셨네요!”라고. 보통이 평균 젖수 이상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 그러니 품평회에 출품해보라는 권유도 자주 들었다. 무엇일까? 그의 손엔 남다른 젖소 사양 노하우가 있는 것일까?



▲손으로 직접 작성한 개체별 정보 현황판을 보며 주바이오 사료연구소 김광수 사장이 설명을 하고 있다.

● 농장탐방 |



하도 궁금해하는 기자의 질문
에 곁에 섰던 아내가 대답한다.

“원~체 좋아해요. 내가 봐두 천직이다 싶으니까요. 소 키우는 게 좋대요. 같이 일 해보면, 한번도 힘들어하거나 짜증을 내지 않아요. 힘 안들이고 일하는 거 같니까요.”

하긴 즐기는 자를 누가 당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그 노하우를 전해준 이는 양병철 사장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봤을 아내의 대답이 아닌가? 그래서 본인에게 확답을 받아보았다. 돌아온 답은 여전히 ‘재밌다’는 평범한 진리.

그렇다고 양병철 사장이 시작부터 달콤함 즐거움으로 재미를 보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88년 한우 30마리로 시작한 목장은 번번이 거간꾼들의 장난으로 어려움을 당했다. 더구나 한우를 키우자면, 돈이 필요할 때마다 그 소를 팔아야 한다는 것이 못 따땅했다. 식구는 많아지고 돈은 절 들지 않고, 절

대했던 그는 주기적 차금으로 올해 9마리를 살지

않을 한마디로 신선 유방집으로 살고 있다. 젖소

를 키우면서 살았던 시절이었다. 그 좋아하는 소

스란히 빛으로 살아야 했다.

하지만 그는 곧 힘을 냈다. 마리수를 늘려야겠다는 목표도 잡고, 1톤 납유라는 더 구체적인 꿈도 설정했다. 사료도 TMR사료로 바꿨다. 그것은 좋은 결정이었다. 유량이 늘기 시작했고, 일도 훨씬 줄었다. 하지만 95~96년 당시의 TMR사료라는 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TMR사료라고 할 만한 것도 못된다고 양 사장은 전한다. 본격적으로 TMR사료라 할만 한 것은 (주)바이오사료연구소를 만나고부터 였다고. 그렇게 열정을 불태워 드디어 98년엔 1톤 납유의 목표를 달성했다. 날아갈 것 같았다. 그 기분에 동네 사람들에게 밥도 샀다.

“2년이 되니까 1톤 만드는 건 금방이더라구요. 그때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그땐 보은군 내에서도 1톤 짜는 집이 5~6집이 넘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함께 동행한 (주)바이오사료연구소의 이천호 이사가 덧붙였다.

“목장하는 사람들한테 1톤이란 건 참 상징적 의미가 있잖아요. 1톤쯤 짜고 나면 우유회사에게도 땅 땅거릴 수 있고, 사료회사에게도 제법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거든요. 물론 생활도 안정적이 되구요.”

(주)바이오사료연구소를 만나기 전엔 다른 사료회사와 거래하면서 자가배합사료도 해봤다. 그게 처음엔 무지 재미있었다. 스스로 건초며, 면실이며, 약품을 구해서 사료회사 지역부장의 도움으로 직접

배합비를 조정해 먹여보니, 성적변화가 눈에 보이고 재미도 있었다.

“근데 그게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지겹더라고요. 일도 많고. 욕심내서 많이 먹여 무리하게 짜면 금방 간이 상하고, 그렇게 간이 상하는 소들은 한창 짜야 될 때 나가기 시작하는데 아까웠습니다. 한 3년 전에 큰 공부를 한 기억이 있어요. 그때 군에서 주는 최고우상까지 받은 소가 있었는데, 그 최고우가 젖을 많이 짜내느라 무리를 했는지 간이 안 좋아지더니, 결국엔 빨리 빼야만 했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성직에 욕심내는 사람들 보면 바보라고 합니다. 그러한 생각이 굳어진 데는 우유파동도 한 몫했죠. 하지만 (주)바이오사료연구소를 만나면서 사료는 사료회사에 맡기고, 수의는 수의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농장의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결 수월하게 목장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큰 교훈을 지금까지 잊지 않고 있는 양병철 사장은 여간해서는 소를 안 빼는 목장주로 유명하다. 경제동물이라 어쩔 수 없이 강제 도태해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이다. 소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한 정성과 애착은 그래서 남촌목장에 또 하나의 불거리를 제공한다. 바로 목장 한 쪐에 붙어 있는 개체별 정보현황이다. 어떤 질병을 언제 앓았는지, 언제 번식을 했고, 수정을 했는지 등의 개체에 대한 정보가 집약되는 곳이다.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의 젖소를 아끼고, 무엇보다 낙농일을 철저으로 알고, 그 일을 즐기는 양병철



▲ 빼아픈 경험을 들려주는 양병철 사장

사장. 그에겐 어떤 꿈이 있을까?

“우선 지금 짓고 있는 새 우사가 잘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아이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제 일을 이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사실 시골에 산다는 게 교육문제를 빼고는 얼마나 축복이에요? 특히 여기는 근처에 청남대가 있을 만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곳이에요. 목장 터로는 제격이죠. 이 일을 자식들 중 누군가가 맡아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최근에 가지게 된 꿈은 그런 겁니다. 아주 깨끗하고, 내실있는 목장을 만들어, 비육을 겸해서 관광농장을 만드는 겁니다. 멋진 자연과 함께하는 깨끗한 목장을 도시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역시나 남들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선사하겠다는 꿈을 지니고 사는 양병철 사장. 자신의 일이 즐거운 니, 타인의 즐거움까지 생각할 수 있으리라. 그의 즐거움이 계속해서 쭉~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란다. ⑤